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4035호 2018년 9월 6일 목요일

[뉴스]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한국 소비자는 봉?
02

코스피 2291.77 (-23.95)
코스닥 820.00 (-7.27)
금리(국고채 3년) 1.90 (-0.02)
환율(원·달러) 1121.50 (+6.60) 〈5일〉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552조원 돌파

고삐풀린 가계부채… DSR 70% 이하로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전월 대비 4.6조원 증가
평균 증가액 크게 웃돌아

주범은 주담대 2.8조 늘어
증가폭 2년여만에 최대치

〈업권별 여신심사관리 현황〉

	DSR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은행	시범운영 (2018.3월)	수도권 (2016.2월) 비수도권(2016.5월)	시행중(2018.3월)
보험	순차적 시범운영 (2018.7월~) 관리지표 도입 예정 (2019.上)	시행중(2016.7월)	-
저축은행		시행 예정 (2018.10월)	시행 예정(2018.10월)
상호금융		자산규모 1천억 이상 (2017.6월) 자산규모 1천억 미만 (2017.6월)	시행 예정 (2018.7월)
여전사		시행 예정 (2018.10월)	시행 예정(2018.10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추석 전에 1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과열에 가계부채도 다시 고삐가 풀렸다.

그간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도 2년만에 최대폭으로 늘며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예상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고(高) DSR 기준을 확정하고,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10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계부채의 연착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집값과 가계부채가 동반 급등해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등 5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52조3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조6549억원이 증가해 올해 들어 월별 평균 증가액인 2조77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주범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2조279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8770억원이나 늘었다. 증가폭으로 보면 지난 2016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DSR을 통한 가계대출 조이기도 예상보다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DSR은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만약 연 소득이 3000만원인데 1년 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로 갚을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DSR은 100%다. DSR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대출가능한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DSR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은행들의 고DSR의 기준은 100% 안팎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100%면 한 해의 소득을 모두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써야한다는 것인데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DSR 기준을 정하기 위해 현재 은행권의 DSR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으로 70~80%를 고려 중이지만 이 안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규제 한도를 80%로 정의한다는 것은 연소득 5800만원의 가계에게 30년 만기 3.5% 대출 가정 시 가계소득의 1500%인 8억7000만원의 대출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가구가 최저 생계비를 지불하더라도 연 2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추가 대출 없이는 생계가 불가능한 상황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선진국의 경우 DSR을 40%로 적용하는 것과는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DSR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지도 관건이다. 지금 기준으로는 대출자의 채무를 산정할 때 최근 급등한 전세자금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등은 빠지게 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文대통령 친서 들고 평양으로 출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하고 있다. 특사단 5명은 특별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한다. (왼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올해도 '불수능' 예고 모평 국수영 어려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5일 시행한 2019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고사 주요 과목의 체감 난이도가 대체로 높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올해 수능 역시 '불수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학원가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평가원 시행 9월 모의고사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 과목이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추정됐다.

〈관련기사 L4면〉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지만 6월 모의고사보다는 쉽다는 분석이 많다. 고난도 문항은 독서파트로 과학기술관련 32번(3점)이 꼽혔다. 이에 올해 수능 국어는 이번 9월 모의고사 수준의 난이도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수학 가형과 나형 모두 지난 6월 모의고사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과 수험생이 치르는 수학가형 최상위권 문제는 다소 쉽게 출제돼 1등급 커트라인은 6월 모의고사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문과생이 치르는 수학나형에서는 최고 난이도 문항이 지난 6월 모의고사 수준 이상으로 어려워 최상위권 변별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작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된 수능 영어 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에서 1등급자가 10%로 나타나 쉬웠던 반면, 올해 평가원 시행 두 번의 모의고사 모두 1등급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 것으로 예상됐다.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열린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고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어의 1등급자 비율은 지난해 6월과 9월, 2018학년도 수능에 이어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 영역 난이도가 등락을 거듭하면 수험생 학습 부담은 증가한다.

이번 모의고사는 전국 2088개 고교와 43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 시행됐고, 수험생 60만780명이 지원해 지난해 대비 지원자가 7295명 늘었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7일 정답을 확정하고 성적은 다음달 2일 수험생에게 통보한다.

/한용수 기자 hys@

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2조2989억에 인수

〈ING생명〉

임시 이사회서 안건 의결
조용병-윤종하 SPA 체결

신한금융그룹이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를 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

신한금융지주는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금융그룹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지분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이사회 직후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과 라이프투자유한회사 윤종하 대표이사(MBK파트너스 부회장)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라이프투자유한회사가 보유한 오렌지라이프 보통주 4850만주(지분율 59.15%)를 주당 4만7400원, 총 2조2989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SPA 체결식 현장에서 조용병 회장은 "업계 최고 수준의 자산건전성과 선진적 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정된 이익구조를 갖고 있는 오렌지라이프의 성공적 인수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성장과 그룹 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관계자는 "생명보험업은 국내 금융시장의 성숙도와 인구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안정된 성장이 기대된다"며 "오렌지라이프 인수로 그룹의 생보 사업라인 강화를 통해 현재 은행·카드 중심의 그룹 사업포트폴리오의 균형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